



하나님을 만날 거예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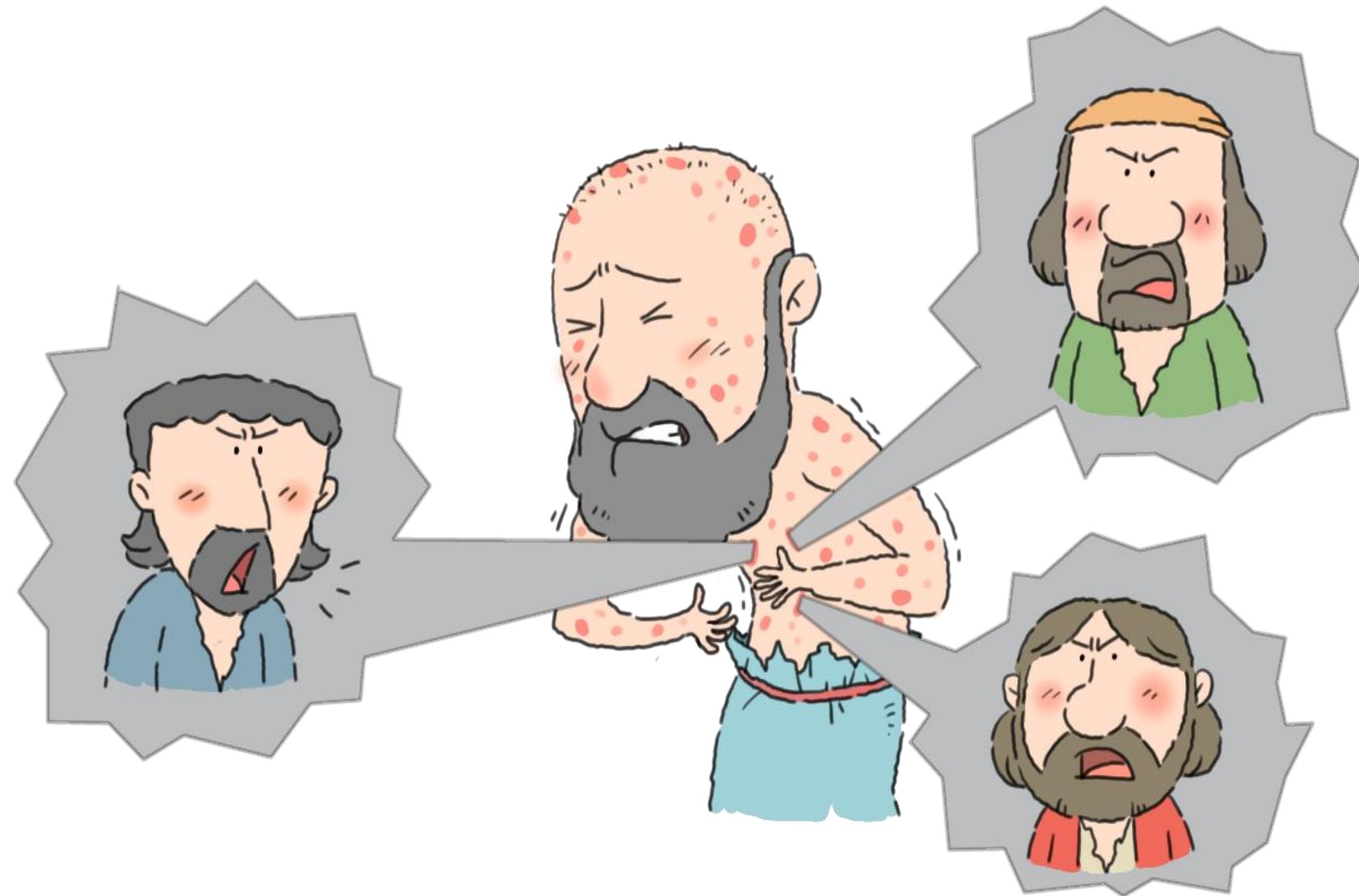
욥기 19장 23-29절

내가 안 그랬는데...



내가 하지 않은 일로 혼나 본 적이 있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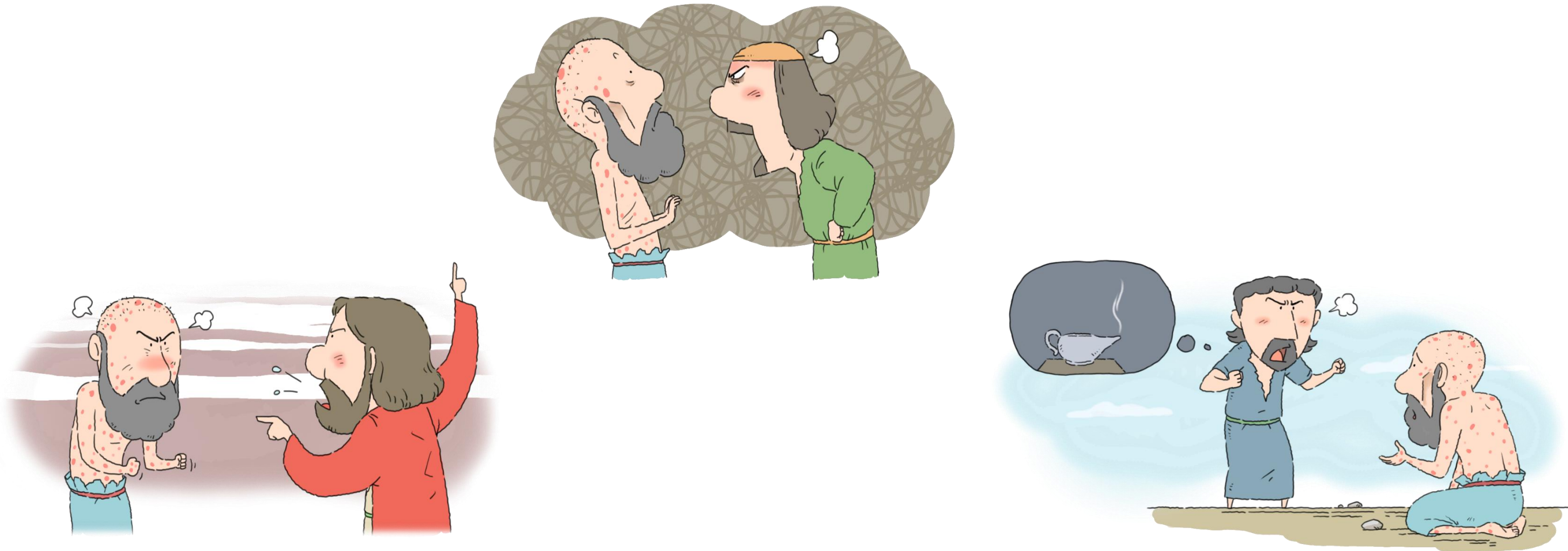
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이 잘못해서
벌을 받았다고 말해서 욥이 답답하고 억울했던 것처럼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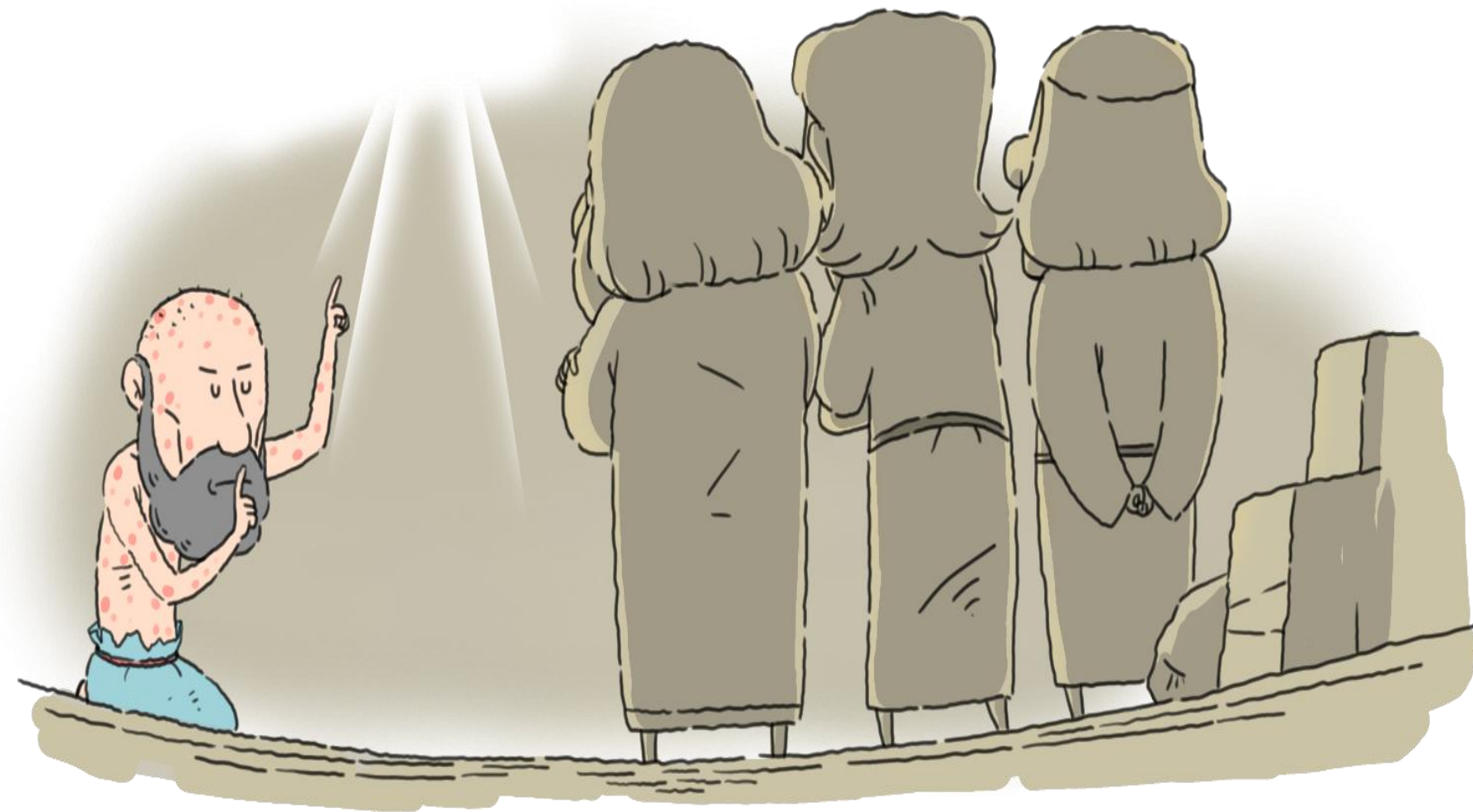
욥은 누구보다 정직하고, 남을 해친 적도 없고,
항상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.



그런 욱에게 친구들은 다 알지도 못하면서
마음대로 다 욱의 죄 때문에 벌을 받았으니
잘못을 뉘우치라는 말만 계속했어요.



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을
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.



욥은 너무 외로웠지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다렸어요.
언젠가 구세주가 오셔서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고 기대했어요.





욥의 소원대로
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.



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,
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신 예수님이
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기억해요!